

# 디지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좋은 방향

자신에게 맞는 프론트 엔드(front-end)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디지털과 오프셋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제품 선택의 범위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든 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계는 날렵하고 성능이 좋은 소형의 기계 장치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인쇄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머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작동의 머리 즉, 워크플로우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항상 기지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가장 좋은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의 특성과 목표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달려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저 길 아래에 있는 다른 회사와는 매우 다를 수 있다.

## 더 간단한 공급 라인

제록스(Xerox) 워크플로 솔루션 마케팅 책임자 앤디 피에루(Andy Pieroux)는 회사의 전략 및 사업 실무가 기술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급업자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를 하기 전에 잠재 공급업자와 고객들에게 그들과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어떤 인쇄업자들은 비용을 들여 이를 배웠다. "장애물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상의하는 공급업자들이지요"라고 한 인쇄업자는 주장한다. 그는 MIS(경영정보시스템) 공급업자가 프리 프레스 판매 회사와 상의했다고 기뻐했지만 웹 투 프린트(web-to-print) 시스템 공급 거래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방법은 단일 공급원 경로를 택하고 모든 워크플로 요소들을 한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의 경우, 한 회사와만 거래하는 것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이지는 않다. 버킹엄(Buckingham) 기반의 BCQ 프리 미디어 책임자 알란 베이즈(Alan Bates)는 "만약 신설 회사라면 단일 공급업체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진화의 과정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수의 직원들을 잃게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버킹엄 컬러(Buckingham Colour)와 컬러 퀘스트(Colour Quest)가 합병하여 만들어진 BCQ는 합병 또는 인수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들을 통합해야 했던 많은 회사들의 전형이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일찍이 석판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한쪽은 휴렛패커드 인디고(HP Indigo) 고객이고 다른 한쪽은 제록스 아이젠3(Xerox iGen3)운영자였다.

BCQ는 디지털 운영과 오프셋 운영이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이트는 디지털 운영을 스크린 트루플로우(Screen Trueflow) 워크플로를 이용하는 석판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디지털이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시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크레오(Creo) 디지털 프론트 엔드를 표준화할 수 있는 두 디지털 인쇄 기술에 맞는 공동 워크플로를 원한다. 회사의 아트워크 스튜디오에는

개인화(사용자 지정)를 포함해 파일 준비를 다루는 디지털 전용 스튜디오가 있다. 디지털 인쇄 준비 작업은 스튜디오보다는 크레오에서 이루어진다.

프리넥트(Prinect) 워크플로와 CTP의 하이델베르크 제품관리 책임자인 가이 엘리엇(Guy Elliott)는 디지털로 옮기면 인쇄업자들이 디지털 인쇄를 추진하기 위해 CTP 워크플로를 이용하기가 유리하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인쇄업자라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것과 강력한 CTP 워크플로를 갖길 원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초창기에는 시스템 간의 연결성이 본래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때의 시스템들은 대체로 “PDF 파일을 디지털 프론트 엔드까지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통합은 항상 증가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디지털 판매 회사들은 이 접근법의 장점에 동의한다. “만약 오프셋 워크플로와 디지털 워크플로를 결합시킬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을 수동으로 확인하거나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요”라고 HP 인디고 워크플로 상담원 사이먼 킹햄(Simon Kingham)은 말한다. “중요한 것은 출력물이 고정적인가 아니면 가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트 서섹스(East Sussex) 기반의 비컨 프레스(Beacon Press)는 오프셋 기계와 함께 두대의 HP Indigo 5500s가 있는 디지털부서를 운영한다. 그룹 기술 책임자 아론 아처(Aaron Archer)는 디지털 인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코닥 프리너지(Kodak Prinergy) CTP 워크플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닥 프리너지는 품질과 자료 통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오프셋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 이를 이용합니다”라고 아처는 말한다. “작업의 주요 부분은 고정적이고 제가 선호하는 것은 프리너지로 조판을 정판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은 프리 프레스 직원들이 이미 프리너지와 조판 패키지 프렙스(Preps)를 훈련받고 익숙하다는 것이다. 가변성 자료는 XMPie를 이용하여 프리지너 밖에서 처리된다. “가변성 자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프리지너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식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비용 절감

여러 상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One-Size-Fits-All 방식은 특히 컴브리아(Cumbria)의 사이퍼 디지털 이미징(Cypher Digital Imaging) 같은 모든 디지털 하우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이퍼(Cypher)는 결국 색 관리 문제 해결의 부산물로서 자동 워크플로에 이르게 되었다. 프로세스 매니저(Process Manager)는 이제 회사의 모든 출력물의 색 보정, 프리플라이팅

(확인작업), 조판을 처리한다. “프리 프레스(인쇄전 공정)를 수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워크플로는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러 해가 지나면 워크플로가 훨씬 더 저렴하게 일을 할 것이고 이 분야의 숙련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라고 관리 책임자 폴 칼랜드(Paul Calland)는 말한다.

프로세스 매니저(Process Manager)가 나오기 전에, 칼랜드는 워크플로 자동 툴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지요. 우리는 작은 회사이고 확인해야 할 수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큰 시스템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오랫동안 물색했지만 계속 헛된 수고만 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직원 18명 매출 100만 파운드)에 맞는 가격의 것이 없었어요. 워크플로의 가격이 대부분 5만~6만 파운드 인데, 그건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작업에 맞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원했습니다. 워크플로를 판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프로세스 매니저의 경비는 4만 파운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칼랜드는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완전 통합이라는 가치에 대해 의심만 남았고, 그래서 아직 회사의 웹사이트를 생산에 연결시키지 않았다. 프린트 사이언스(Print Science)라는 회사의 프린터스 웹사이트(Printers Website)라는 웹 투 프린트 패키지를 이용한다. “웹 투 프린트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워크플로에 수동으로 키깅신(re-keying)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워크플로 커넥터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에는요”라고 그는 말한다.

디지털 상담원 크리스 조단(Chris Jordan)은 디지털 워크플로 툴 비용이, 특히 디지털 인쇄를 기존의 프리프레스 워크플로에 연결하는 커넥터 비용이 많은 회사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것에 동의한다. “앞으로 좀 더 저렴해지길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디지털 인쇄를 위해 CTP 워크플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1만~1만 5천 파운드가 드는 것은 너무 비쌌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전체적인 통합이 가치가 있고 웹 투 프린터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웹 투 프린터가 촉매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프리 프레스 자동화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필자: 바니 콕스(Barney Cox)

번역: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